

#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이기덕\*·이선규\*\*

1. 서 론
2. ‘국민의 의지’ 중요성
3.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상황
4.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5. 결 론

## 1. 서 론

전쟁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여러 요인들이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는 군사력의 우위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력의 우위 못지않게 경제력의 우위가 중요한 승패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유는 고가의 장비와 탄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로 전쟁의

---

\*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졸(육군대령)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교신저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의 결과에 있어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유형적인 요소이지만, 무형적인 요소로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다.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과학기술력, 정치와 외교력, ‘국민의 의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력의 우위는 물론 더불어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국민의 의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총력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전의 특성에서 국민의 의지는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전쟁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에게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수많은 고통을 준다. 전쟁기간 중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가 하면 집이 파괴되어 한 겨울에도 천막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연료가 충분하여 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전장에서 폭격 등으로 희생되기도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터로 혹은 군수시설로 동원되기도 한다.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국민들은 끝까지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승리를 위해 싸웠는가 하면, 어느 나라 국민들은 그런 고통을 참지 못하고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함으로써 끝내 전쟁에서 패하였던 사례가 있다. 전자가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이라면 후자는 독일과 러시아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도 6·25전쟁시 300만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산업시설을 포함하는 수많은 시설들이 파괴됐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도 발생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웠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노동당의 대남적화

전략, 그동안 김정은의 발언 등으로 볼 때 언제라도 작은 충돌이 확대돼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6·25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명의 손실과 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를 억제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때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우위는 물론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정치와 외교력 등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강조도 하지 않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도 미흡하다.<sup>1)</sup> 오히려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이 정치권엔 진출해 있는 등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핵(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전쟁사에서 나타났던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교훈을 찾아서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당시 연합국의 핵심이었던 영국과 동맹국의 핵심이었던 독일에서 각국의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먼저 ‘국민의 의지’란 무엇인지 그 논거를 기술하고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떤 원인으로 발발해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간략히 기술하였다. 다음은 전쟁기간 중 양국의 국민들이 당면한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서 이를 극복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 현재 ‘국민의 의지’에 관해서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기본교리」에 국가방위요소로서 ‘국민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 서울: 합동참모본부), 그 외에 국민의 의지와 관련된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원규, 「국민안보의지 통합에 관한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년); 이성근, “국민의 전쟁참여 의지에 대한 국가별 영향요인 분석”, 「정책연구」 통권 161호(2009년 여름), 97~133쪽; 박계호,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북코리아, 2012.

난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표출됐는지를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쟁기간 중 ‘국민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담이 됐던 각종의 의무와 동원, 조세부담과 전비조달, 식량문제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 2. ‘국민의 의지’ 중요성

### 1) ‘국민의 의지’란 무엇인가?

중국의 고대 병법가인 손자(孫子)는 『손자병법』 제1편 始計에서 ‘故經之以五事，校之以計，而索其情，一日道，二日天...’라고 하였다. 또한 道者 令民與上同意也 故可與之死 可與之生 而不畏危. 즉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근본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세세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데, 그 첫째가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면, 국민들은 위정자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쟁에서는 어떤 위험일지라고 극복하여 승리를 하려는 것으로<sup>2)</sup> 이는 곧 ‘국민의 의지’라 할 수 있다.

프러시아의 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국민의 의지’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삼위일체론(Trinity)을 주장하면서 제1극(국민)과 제2극(군대), 제3극(정부)이 일체를 이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제1극인 국민이 바로 ‘국민의 의지’ 또는 정신력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3)</sup>

2) 김광수, 『손자병법』, 서울: 책 세상, 2012, 21~24쪽.

3) 박계호, 앞의 책, 71~72쪽.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 장군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장군의 참모와 육군의 참모차장(병참감 겸무) 및 참모총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독일군의 전쟁을 수행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35년 『국가총력전(Der Totale Kriege)』을 집필하였다. 여기서 그는 국가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경제력, 총수 등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정신적 단결’은 국민의 정신력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서 생존투쟁에 필요한 단결력을 국민과 군에 부여하고, 국민의 존망을 위하여 전쟁에서 최후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여기서 ‘국민의 정신적 단결’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국민의 의지’와 연관된다.

일본인 다카하시 하지메(高橋 甫)는 1953년 『현대총력전』을 집필하면서 역시 국민의 의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였다. 그는 현대전에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으로 무력과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사상전력이 바로 국민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 정신력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국민의 의지’와 연계되는 부분이다.<sup>5)</sup>

합동기본교리에서는 현대전이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됨을 감안하여 국가총력방위(國家總力防衛)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 총력 방위를 위해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6)</sup>

한편 김홍철은 총력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인구의 규모와 물질적 기반인 재정력, 무기를 3대 요체로 하여 산업과 기술역량 및 ‘국민의 전의(戰意)’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 전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4) 루덴도르프, 최석 옮김, 『국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1972, 35~37쪽.

5) 다카하시 하지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옮김, 『현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1975, 87~92쪽.

6) 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 대전: 육군인쇄창, 2002, 34쪽.

‘국민의 의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앞에서 보듯 각각의 표현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들을 반영하여 박계호는 국가총력전 요소로써 ‘국민의 의지’를 다수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고 식량이나 생필품, 연료, 의약품의 부족 등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 및 비전투 활동에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무형의 정신적인 힘과 태도 및 자세<sup>8)</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의지’는 연구자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전쟁에서 ‘국민의 의지’의 역할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투원은 직접 전장에서 적들과 전투를 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후방에서 비전투원으로서 동원돼 의무, 통신, 수송, 병기 등의 다양한 전투근무지원시설에서 일을 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무기와 탄약 공장에서 전투장비와 무기, 탄약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다음의 <표 1>에서 제시된 제1차 세계대전시 병력동원의 규모가 이를 입증한다.

<표 1> 제1차 세계대전시 인구대비 동원병력 비율<sup>9)</sup>

구 분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동원병력(만명)	950	820	380	1,300	1,325	900
당시인구(만명)	4,500	3,900	9,800	17,100	6,500	5,200
동원 비율	4.7 : 1	4.7 : 1	25.7 : 1	13.1 : 1	4.9 : 1	5.7 : 1

7) 김홍철, 『전쟁과 평화의 연구』, 서울: 박영사, 1987, 47~49쪽.

8) 박계호, 앞의 책, 657쪽.

9) 폴 케네디, 한국경제신문사 옮김,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280~284쪽, 380쪽. 여기서 제시된 인구는 1913~1914년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나 동맹국의 주요 당사자였던 각국의 전쟁비용 규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비용이 소요됐는지 아래의 <표 2>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2>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각국의 전쟁비용<sup>10)</sup>

구 분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비용(달러)	230억	93억	171억	54억	199억	47억

이러한 비용들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세금을 대폭 인상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도 비용이 부족해지면 전시채권(War Bonds)을 발행하여 국민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면서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한편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회수함으로써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방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전비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전쟁기간 중 전비조달 문제는 정부가 항상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해상봉쇄로 무역이 차단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어죽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겨울에는 연료가 부족하여 냉방에서 자야만 하였다. 폭격으로 집이 파괴되면서 텐트에 거주해야만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가족과 친지가 사망하는 등 전재민이 발생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이렇게 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운 국민은 승리하였고, 그렇지 못한 국민은 패한 것이다. 여기서 승리를 위한 무형적인 요소로 ‘국민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0) 위의 책, 380쪽.

## 3) 한반도 전쟁양상에서 ‘국민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

한반도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그들의 인구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119만 명(그 중 특작부대 20만)의 상비군과 770만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15개의 군단급 부대와 88개의 사단급 부대, 70여 개의 기동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sup>11)</sup> 그들이 보유한 주요 전투장비는 아래와 같다.

〈표 3〉 북한군 주요 전투장비

구분	전차	야포	방사포 등	함정	잠수함	전투기	헬기
수량	4,200대	8,600문	5,100문	740여 척	70여 척	820여 대	300여 대

또한 4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3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하였다. 2,500~5,000톤에 이르는 화학 무기 보유 외에 탄저균, 천연두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 작용제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은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북한군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전쟁실상이 발생할 것이다.<sup>13)</sup>

전쟁임박단계에는 북한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작전부대 중 일부가 지상이나 해상 등으로 은밀히 침투하여 전력, 교통, 통신, 수도 등 국가 핵심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고 전문해커들은 인터넷 등 국가정보통신망을 공격하여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 및 징집거부,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부기능의 마비와 주요시설 테러, 반전 시위 발생, 금융시장 혼란, 악성유언비어 확산, 불순세력의 사회혼란 조장,

11)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289쪽.

12) 위의 책, 29~30쪽.

13) 비상기획위원회, 『전장실상에 부합한 비상대비훈련 사건 계획 작성 매뉴얼』, 서울: 비상기획위원회, 2007, 6~8쪽 요약.



주요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 등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식량과 연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들의 사재기 행위도 급증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예기치 못한 각종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작전 및 방어단계에는 170밀리 자주포 및 240밀리 방사포 등 각종 장사정포의 수도권 집중포격과 지상 및 해상·공중에서의 기습공격, 특작부대의 전·후방 지역에 대한 대량침투, 후방지역의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에 미사일과 화학탄, 생물학 무기 등의 사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적의 공격양상에 따라 동원 및 징집거부, 사이버 테러로 인한 국가기능의 마비, 금융시장의 혼란,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반전시위, 방송과 통신체계 마비와 대도시 피폭으로 인한 단전과 단수, 금융기관 대량인출, 대량의 피난민 및 전재민과 사상자 발생, 식량과 생필품 공급의 제한이나 사재기 등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있어 극도의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다양하고도 집요한 각종 활동들을 행할 것이며, 이때를 이용한 사회 불순 세력들의 의도된 사회혼란도 예상된다.

반격 및 격멸 단계에는 적이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면서 후방지역의 부대들은 축차적 방어진대를 편성하고, 아 후방지역에서 작전 중인 특수부대는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요시설과 병력의 증원으로 등에 공격을 지속할 것이다. 이 단계에는 적의 철수와 아군 공격준비부대의 이동, 소산 및 이동한 주민의 복귀 등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국가기반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가 추진되면서 물자와 인력소요가 급증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수많은 부대가 증편되고 창설된다. 그런가 하면 무기와 탄약 등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군수시설에서도 많은 기술 인력들이 요구된다. 정부조직들도 전시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확대된다. 전쟁

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처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되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는 각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전쟁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비조달을 위해서 평시 없었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거나 조세율이 인상될 것이고, 화폐의 발행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증대돼 인플레이션 현상도 발생할 것이다. 전비조달을 위한 전시채권도 발행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중 불요불급한 부분의 지출은 억제되고 국방 및 군사부분으로 대부분 전환될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시에는 평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때문에 검토되고 시행될 것이다.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기간 중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였다. 배급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 노동량에 따라 배급량을 달리하는 조치도 하였다.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용한 국토를 모두 농경지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평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26%에 불과하다. 평시 부족량은 수입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상황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갑자기 수요량이 폭증하고 사재기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부족하여 식량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기아자가 발생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세력들은 이때를 호기로 이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 국민적 노력을 통합해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다.

석유 등 난방원료도 전시 등 국가비상시에 대비하여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기는 하나 수요량의 대부분을 해외도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석유수송로가 어떤 이유로든 차단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군사작전은 물론 국민생활의 안정에도 많은 불편을 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양국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대의 전투원으로서 또는 무기와 탄약 공장의 생산인력으로 동원임무가 부여되었다. 영국이나 독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금의 인상과 전시채권을 발행하여 전비를 조달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양국 모두 식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상황이 양국에서 모두 발생하였지만 영국은 이를 극복한데 반하여, 독일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전쟁환경에서 양국의 ‘국민의 의지’는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어떤 전쟁에서보다도 예측하지 못한 피해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sup>14)</sup>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불굴의 의지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상황

#### 1) 전쟁의 발발과 전개, 결말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

---

14) 1993년 북핵위기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세울 당시 미국은 약 4개월의 고강도 전쟁이 요구되며 60만여 명의 한국군과 40만여 명의 미군 증원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는 럭(Gary Luck) 장군은 월남전과 걸프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국민의 다수가 도시생활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볼 때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할 경우 최신무기의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인해 8~10만 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00만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미국은 전비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야만 하고 주변국들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전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Don Oberdorfer, 이중길 옮김,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 고양시: 도서출판 길산, 2002, 474~475쪽)

하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Franz) 공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에 의해 암살됨으로써 발발되었다.<sup>15)</sup> 당시 유럽에서는 먼저 영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뒤를 이어 뛰어난 독일과 서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돌이 심화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보불전쟁의 패배 등으로 독일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삼국동맹(Triple Alliance)<sup>16)</sup>과 영국과 프랑스 및 러시아 등 삼국협상(Triple Entente)<sup>17)</sup>의 대립, 발칸반도에서의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 등 유럽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립과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를 방문하다가 암살된 것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되자 오스트리아 제국은 세르비아에게 10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sup>18)</sup> 이러한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세르비아는 9가지는 받아들였으나 황태자 암살사건 재판에 오스트리아 대표 참석을 요구

15)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은 1914년 프랑스나 러시아는 전쟁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나 러시아는 그들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국가이익에 대하여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호소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데 동의한다. 세르비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징집하거나 훈련을 하는 일이 없었다. 독일의 세계정책(맹창주의)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발칸정책이 원인이 된 황태자 암살사건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이다.(Ruth Henig,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UK: Clay Ltd, 1994, p.50)

16) 비스마르크 시절인 1882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이탈리아가 체결한 조약으로 비밀의 군사동맹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삼국협상과 대립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탈리아는 동맹국으로부터 탈퇴하였으며 뒤에 삼국협상국으로 가입하였다.

17)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의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상호간에 대립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당시 독일은 비스마르크시대로 해외식민지 건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를 축출하고 등장한 빌헬름 2세는 해외식민지 건설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가 이에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독일을 고립시킬 필요성을 느껴 1894년에 프랑스와 러시아, 1904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협정을 맺음으로써 삼국협상을 완성하였다. 협상국에는 뒤에 미국을 포함하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였다.

18)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5, 192쪽.

하는 사항은 세르비아의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부하였고,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를 이유로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수도 베오그라드를 폭격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발발한 것이다.<sup>19)</sup>

이에 같은 슬라브족으로서 세르비아에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가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자 독일이 8월 1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총동원에 들어갔다. 2일에는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하여 중립국 룩셈부르크를 침공하였고, 3일에는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벨기에를 침공하였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이번에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5일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렇게 협상국과 동맹국이 상호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sup>20)</sup>

그 동안 누적되어왔던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를 둘러싼 팽창주의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군비경쟁, 삼국협상과 동맹국의 대립 등이 누적돼 갈등이 악화되다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 암살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돼 1914년 7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28개 국가는 협상국,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 불가리아 등 4개 국가는 동맹국으로 각각 진영화하여 치른 역사상 최초의 대전쟁(Great War)<sup>21)</sup>으로 많은 나라들이 처음 예상하였던 단기전과는 달리 4년 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쟁에 참여한 각국은 총력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자원 등 전쟁지속능력에서 동맹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불가리아(1918. 9. 26)와 터키(1918. 10. 30)가 먼저 이탈하였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도 평화협정에 서명(1918. 11. 3)하였다. 마지막으로

19) 위의 책, 192쪽.

20)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강민수 옮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 서울: 도서출판 플래닛 미디어, 2010, 48~50쪽.

21)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지역에서 발발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였던 전쟁을 일컬어 하는 말

독일이 항복(1918. 11. 11)하고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베르사유조약을 체결(1919. 6. 28)함으로써 종전되었다.

## 2)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의 국력의 비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18~19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해 있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전쟁(보불전쟁, 1870~1871)에서 승리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가 독일을 통일하고 뒤늦게 산업혁명에서 성공하여 영국보다 늦기는 하였지만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력의 변화를 반영하듯 186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 당시 주요 열강들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1900년을 기점으로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앞서서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갖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음의 <표 4>는 보여준다.

<표 4> 1860~1900년 기간 중 영국과 독일의 경제력 변화<sup>22)</sup>

구 분	1860	1870	1880	1890	1900
1 위	영국	영국	미국	미국	미국
2 위	프랑스	미국	영국	영국	독일
3 위	미국	프랑스	독일	독일	영국
4 위	독일	독일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독일의 이러한 경제력의 확대와 더불어 군사력의 확장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국력은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를 훨씬 앞서고 영국마저 능가하면서 유럽대륙에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있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독일의 통일에 따른 급속한 인구 팽창과 잘 훈련된 기능공을 배출해 내는 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수준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있었다.<sup>23)</sup>

22) Fritz Sternberg, *The Coming Crisis*(London: Victor Gollancz, 1947), p.102.

23) 폴 케네디, 앞의 책, 293쪽. 당시 독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말로 이탈리아 신병

독일의 경제력 성장은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확장을 가져와 뒤늦게 해외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면서 영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였고 이를 위해 영국과 독일은 해군력 건설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충돌은 이른바 영국의 3C정책(Calcutta-Cairo-Capetown)과 독일의 3B(Berlin-Byzantium-Baghdad)정책으로 나타나면서 양국간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장하였던 ‘명예로운 고립정책(Splendid Isolation Policy)’을 포기하고 유럽대륙의 세력균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는 영일동맹(1902년), 프랑스와는 해군협정을 체결(1904년)하였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러시아와도 협상 끝에 영국-프랑스-러시아를 연결함으로써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삼국협상의 틀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독일도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이탈리아를 연결하여 동맹국으로서 틀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협상국과 동맹국의 틀이 완성되면서 유럽에서는 힘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시 독일과 영국의 국력을 보면 어느 일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5〉 1913~1914년 독일과 영국의 국력의 비교<sup>24)</sup>

구분	인구 (만명)	국민총생산액 (억\$)	1인당 소득(\$)	군사력 (만명)	철강생산 (만톤)	군함 (만톤)
독일	6,500	120	184	89.1	1,760	130.5
영국	4,500	110	244	53.2	770	271.4
비교	1 : 0.69	1 : 0.9	1 : 1.33	1 : 0.6	1 : 0.44	1 : 2.08

1,000명 가운데 문맹자가 330명,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220명, 프랑스는 68명이었는데 독일은 단지 1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독일의 교육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4) 위의 책, 280~284쪽, 339쪽. 독일의 철강생산량 1,760만 톤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철강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다.

### 3) 독일의 상황

#### (1) 전쟁의 발발과 독일의 조치

영국과 독일의 대립과 경쟁이 악화되다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 암살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시작됐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오스트리아는 동맹국인 독일에 전쟁이 발발할 시 지원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고, 독일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없이 오스트리아제국이 세르비아에 취하는 조치를 무조건 지지하면서 원치 않게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sup>25)</sup>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기 전 이미 수립돼 있었던 쉘리펜계획(Schlieffen Plan)에 따라 서부전선에서 전투는 시작됐다. 이에 프랑스도 17계획(Plan-XVII)에 따라 독일군에 대응함으로써 전쟁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전쟁은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 지역에서 주요 전장이 형성되면서 베르덩전투(1916. 2. 21~12. 18)와 솜므공세(1916. 7. 1~11. 13) 등 주요 전투를 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미국도 1917년 4월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지속능력에서 취약한 독일은 많은 전술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과확대할 수 있는 예비병력은 물론 무기 및 탄약과 식량의 부족에 시달렸다. 당시 독일은 전쟁이 길어야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측을 벗어나 장기화 되면서 인적자원이나 경제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독일은 무역이 대서양에서 영국의 해상봉쇄에 의해 차단되면서 전쟁에 필요한 원자재와 식량 등의 공급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여기에 미국마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병력과 물자를 대량으로 지원하면서 연합국 전력은 나날이 강화되는데 비해 독일은

25)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48~49쪽.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갔다. 여기에서 국민들 사이에서의 전쟁에 대한 염증의 확산과 파업, 사회주의 확산 등 반정부 활동, 해군에서의 반란으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휴전협정과 베르사유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다.

## (2) 전쟁기간 중 부과된 의무와 국민의 상황

전쟁이 처음 시작되던 1914년 8월 독일 국민들은 독일군이 전쟁에서 곧 승리를 하면서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독일국민들은 베를린역에서 서부전선으로 출동하는 부대들을 환송하면서 파리에서 그해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들의 바람대로 초기단계는 독일군이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그해를 넘기고 이듬해가 되어도 승리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고착돼 이른바 ‘참호전투’로 장기화되면서 전쟁을 지속하는데 따른 많은 부담들이 국민에게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중반기에 접어들고 전황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시 황제인 빌헬름 2세를 무시하면서 실권을 행사하던 힌덴부르크와 군부는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1916년 이른바 ‘힌덴부르크계획(Hindenburg's Program)’을 만들어 사회전반에 걸쳐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sup>26)</sup>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지 않은 남자들을 징집할 목적으로 지원군법(Auxiliary Service Law)을 제정해서 17~60세의 남자들을 동원하였다.<sup>27)</sup> 이 법령으로 당시 독일의 총인구 6,500만여명 가운데 1,325만 명이 동원되었다.<sup>28)</sup>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동원된

26) Hew Strachan, "Economic Mobilization: Money, Munition, and Machine",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pp.142~143; Richard Bessel, "Mobilizing German Society for War", *Great War, Total War*(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2000), pp.444~445.

27) Richard Bessel, op. cit., p.444.

28) 폴 케네디, 앞의 책, 380쪽.

것이다.<sup>29)</sup>

또한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자 여자들도 예외 없이 동원하여 무기와 탄약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고전쟁청(Supreme War Office)을 만들었으며, 각종의 금속 자원은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는 것 이외에 사용을 통제하였다.<sup>30)</sup> 당시 무기를 제조하였던 크루프(Krupp)사나 지멘스(Siemens)회사 같은 곳에서는 남자들이 동원되고 남은 빈자리에 여자들로 채워져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였다.

전비를 조달하는 것도 전쟁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우선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금을 인상하다보니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전비조달에 어려움이 닥치자 정부는 전시채권을 발행하였다.

사실 전쟁초기 단계에 독일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배척을 받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은 미국의 월街(War Street)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오로지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방의회에서는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시채권을 발행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전시채권은 5%의 이율에 10년의 기간을 거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전시채권은 회사와 은행 등에서 주로 구입하고 개인들도 구입을 하였으며, 이렇게 정부는 전시채권을 판매하여 1,000억 마르크화의 전비를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쟁기간 중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up>31)</sup> 이렇게 해서 독일이 당시 총 사용한 전비의 규모는 199억 달러에 달한다.<sup>32)</sup>

다음은 식량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은 국토가 비교적 위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이다.

---

29)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654쪽. 이렇게 동원된 사람 가운데 180만 8천여 명의 사망자와 424만 7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산업 활동에 왕성한 연령의 나이였다.

30) Richard Bessel, op. cit., p.445

31) [http://en.wikipedia.org/wiki/war\\_bonds](http://en.wikipedia.org/wiki/war_bonds)(검색일: 2013.6.17)

32) 폴 케네디, 앞의 책, 380쪽.

따라서 밀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수요량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여 부족한 양은 주로 중남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주식으로 감자를 많이 먹을 정도로 감자 생산이 많은 나라이다. 이러한 국토의 상황으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독일은 많은 양의 식량과 육류를 수입하였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연합국의 해상봉쇄로 식량수입이 차단됐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제국곡물청(Imperial Grain Office)을 만들어 식량수급에 대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부족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자 제국곡물청을 확대하여 전쟁식량청(War Food Office)을 설치하고 식량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여기서는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령과 노동조건, 남녀 성별 등을 감안하여 식량배급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다.

이들테면 군수공장이나 탄광 같은 곳에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량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많은 양의 식량을 배급하고 사무원이나 학생, 노인들에게는 적은 양을 배급하였던 것이다. 1915년부터 빵의 배급제를 도입하였고, 곧이어 고기·우유·버터 등도 배급되기 시작하였다. 1916년 겨울을 예로 들면, 어른 한 사람의 1주일분 배급량은 빵 1,900g, 감자 2,500g, 버터 80g, 고기 250g, 설탕 180g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평상시 소요량의 1/3에 불과하였다.

국가의 자원이 힌덴부르크 계획에 의해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엄격히 통제됐다. 농업부분에 사용돼야 할 인력이나 연료, 심지어는 말까지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운반하기 위하여 전용됐다.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농업분야에서 가용자원의 사용이 통제되자 곡물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식량의 수입마저 연합국의 해양봉쇄로 차단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1916~1917년에는 생산량마저 급감하면서 주식 대용으로 순무와 감자를 주로 먹어야 하였으며, 감자의 생산량마저 줄어들면서 순무만을 먹는

소위 ‘순무의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sup>33)</sup>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학자는 “군수품 생산에만 편중함으로써 군부의 경제운용자들은 1918년 말에 나라를 기아직전에까지 몰고 갔다”라고까지 혹평을 하였다.<sup>34)</sup>

1918년이 되면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식량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격은 폭등하였고,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식량문제가 악화되자 독일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한 이후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100만여 톤의 식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등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35)</sup> 그런가 하면 루마니아로부터는 소맥과 석유를 조직적으로 약탈하기도 하였다.<sup>36)</sup>

이렇게 식량수급 상황이 어렵게 되자 식량배급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권력자나 부유층은 암시장을 통해 많은 양을 구입하는가 하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식량을 배급받는 등으로 여기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처음에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동원하였다. 이 방법은 전쟁 초기단계에 국민적 열정을 모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도 1916년 이후 정부의 전시경제 관리 부실과 식량부족 해결 미흡, 전사자와 부상자 가족들에 대한 관리부실 등이 겹치면서 악화되었다.<sup>37)</sup>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의 누적과 함께 국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고단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희망과 함께 전쟁에 염증을

33) B. J. C. Mekercher, “Economic Warfare”,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 p.125.

34) 폴 케네디, 앞의 책, 375~376쪽.

35) 피터 제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498쪽.

36) 폴 케네디, 앞의 책, 374쪽.

37) Richard Bessel, op. cit., p.450.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염증은 처음에는 산업현장에서 파업(Strike) 등의 분규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곳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파업양상이 점차 격화되고 대규모화되면서 베를린에서는 계엄령(Martial Law)이 선포되었다.<sup>38)</sup>

식량의 부족이 심화되고 파업마저 확산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좌파언론들은 사회주의 인민정권 수립을 주장하였고, 길거리에서는 시위들이 빈발하는 등 국민들의 반발이 확대되면서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11월 4일 마침내 영국해군과의 일전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은 킬(Kiel) 군항의 해군들이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폭동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각료들은 빌헬름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연합국에 휴전협상을 제의하였다.

이 무렵 동맹국의 일원이었던 불가리아가 9월에 전투를 포기하였고, 터키는 10월말 적대행위를 멈추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도 11월초 항복하면서 독일이 단독으로 전쟁하기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독일은 연합국에 휴전을 제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연합국이 이를 받아들여 1918년 11월 11일 휴전이 되었다가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조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종전된 것이다.

이렇게 독일은 휴전을 제의하였지만 당시 독일육군은 아직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만 보아서는 독일이 휴전을 제의할 정도로 전투에서 열세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국내에서는 식량의 부족으로 야기된 파업이 폭동과 혁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마저 생기는 한편 해군의 반란마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쟁의 수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이다. 독일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것이 휴전을 제의하는 중요한

38)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325~326쪽.

한 가지 이유가 된 것이다.

힌덴부르크는 자신의 이름을 모방한 계획으로 많은 국가의 자원들을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데 동원하면서 승리를 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군수산업의 확대만을 고려하였다. 결국 힌덴부르크계획은 독일사회를 모두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던 애초 계획의 의도와는 달리 막대한 동원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으로 저항을 야기시켜 국민들은 독일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말든지 어서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하도록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 뿐이다.<sup>39)</sup> 국가의 전시 정책이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한 채 군사적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전략사상가인 앙드레 보프르(Andre Beaufre)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요원과 국민의 사기를 고도로 진작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독일은 군인이 황제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고, 국민들은 전쟁의 승리는 고사하고 염증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 4) 영국의 상황

##### (1) 전쟁의 발발과 영국의 조치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되고 긴장이 고조되던 1914년 7월까지만 해도 영국의 태도는 중립적이었다. 영국은 당시 발생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거절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독일은 영국이 중립을 지켜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분쟁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국한된다면 방관적 입장을 취하겠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개입한다면 결코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영국주재 독일대사에게 알렸고 이러한 사항들은 독일로 보고됐다.<sup>40)</sup> 이러한 보고를 받은 독일정부는 영국이 중립을

39) Richard Bessel, op. cit., p.446.

40)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574~578쪽.

지킬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하였다.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당시 영국이 벨기에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839년 영국이 벨기에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조약당사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국이 벨기에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독일군이 영불해협을 장악한다면 힘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영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개입을 시작하였다.

전쟁당시 영국의 수상은 애스퀴스(Herbert Asquith)였다. 독일이 해군력을 확장하고 군비를 증강할 당시 영국도 적절히 군사력을 정비하면서 준비를 해야만 되었으나 영국은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독일군의 군비증강에 대응하는 해군력 강화계획은 의회에서 부결됐으며, 병기나 탄약은 국방비 절약을 이유로 소량만 생산하도록 요구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프랑스 전선에 파견된 원정군 부대는 한동안 심각한 탄약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징병제 도입도 한때 논의되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쟁초기 단계에 영국은 애스퀴스 내각의 무능한 전쟁지도로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결과가 없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됐다. 애스퀴스 내각에 이어 등장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가 영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 (2) 국민에게 부과된 각종의 요구와 국민의 상황

전쟁이 발발하자 1914년 8월 영국 정부는 국토방위법(Defense of the Realm Act)을 제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전쟁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 군사 및 산업목적을 위한 징집실행, 비애국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1)</sup> 전쟁물자법(War Material Act)을 제정

41)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643쪽.

하여 물자생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곧 총력전을 실시한다는 의미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당시 6개의 사단 가운데 2개 사단을 영국에 잔류시키고 4개 사단을 원정군(British Expeditionary Forces)으로 편성해 프랑스에 파견하였다.<sup>42)</sup> 전쟁이 진행되면서 손실이 발생돼 병력 보충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징병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자유당 정부는 이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지원병제도로 1단계에 10만여 명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조국은 그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포스터를 발행하여 애국심에 호소하였다.<sup>43)</sup>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모병제만으로는 병력을 충원할 수 없게 되자 징병제 채택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1915년 7월에는 국민등록법(National Registration Act)을 제정하여 15~60세의 인구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217만여 명이 등록하였다. 그 결과 500만여 명의 남성이 군에 입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징병제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실효성은 다소 부족하였다.<sup>44)</sup>

프랑스에서 진지교착전이 전개되면서 더 많은 부대와 병력이 필요하게 돼 병력을 모집하고 부대를 편성한 결과 1916년 초에 영국군은 38개 보병사단에 5개 기병사단까지 부대를 확장하면서 프랑스에 파견된 영국원정군도 대폭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sup>45)</sup>

병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영국군이 당면한 커다란 문제는 탄약의 부족이었다. 영국이 국방비 절감을 이유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로 1916년에 이르러서는 탄약위기(Ammunition Crisis)가 발생하여 영국군 전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로이드 조지에 이어서 처칠(Winston Churchill)이 탄약성장관으로 탄약생산 책임을 맡고 미국으로부터

42) 육군본부, 『영국육군사』, 대전: 육군인쇄창, 1982, 365쪽.

43)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위의 책, 177쪽.

44) 위의 책, 176~177쪽.

45) 육군본부, 위의 책, 377쪽.



새로운 기계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등으로 당면한 탄약위기를 극복하였다.

전쟁과 더불어 여성들의 동원도 확대되었다. 전쟁발발 직전인 1914년 7월에 전쟁과 관련되는 부문에 종사하였던 여성의 숫자는 2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었으나 1년 뒤에는 25만 6,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탄약위기가 촉발된 1916년 이후에는 다시 52만여 명으로 확대되었다.<sup>46)</sup> 마침내 전쟁이 절정에 이를 무렵인 1918년 7월에 가서는 여성 731만여 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 탄약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94만 7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탄약생산 노동자들의 90%에 해당하는 숫자일 정도로 탄약생산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은 막중하였다.<sup>47)</sup> 또한 많은 여성들은 제복을 입고 정비사나 운전수 등으로 일을 하였으며, 여군도 창설돼 왕립해군이나 공군 같은 부대에서 주어진 일을 했다.

영국에게 전비조달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영국은 당시 금본위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영국은행은 전쟁선포가 은행의 인출상황으로 확대될까 두려워 화폐와 은행 관련 법령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3일간 은행을 폐업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금을 준비함이 없이 30억 파운드의 은행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4년 11월에 처음으로 1923~1925년 상환을 조건으로 연이율 3.5%의 전시채권이 35억 파운드의 가치를 갖는 전시채권을 액면가 5% 할인하여 33.25억 파운드 발행하였다. 이어서 1915년 6월에는 90.1억 파운드의 전시채권이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기간 중 영국정부는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시채권을 발행하였다.<sup>48)</sup>

미국은 1915년 당시에는 아직 중립국이었지만 심정적으로는 연합국으로 영국에 재정적·물질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비조달이 어려워지자 영국은 당시 미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모건(J. P. Morgan) 은행을 영국의 대항은행으로 지정하고 이 은행을 통해서 전쟁에

46)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178쪽.

47) 위의 책, 321쪽.

48) [http://en.wikipedia.org/wiki/war\\_bonds](http://en.wikipedia.org/wiki/war_bonds)(검색일: 2013.6.17)

필요한 탄약이나 물자를 구입하였다. 이 은행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영국에게 필요한 신용거래도 하게 만들어 주었다. 1916년 가을에는 영국의 대금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미국으로부터 물자유입이 거절되자 12월 영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었던 금과 유가증권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해결하기도 했다.<sup>49)</sup>

이렇게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쟁기간 중 지원을 받거나 빌린 돈은 총 68.75억 달러(1915: 9.12, 1916: 18.87, 1917: 20.08, 1918: 20.6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0)</sup>

1916년 9월, 이 무렵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대포나 탄약, 금속, 유류 및 식량, 기계 등을 수입하느라고 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한동안은 매월 2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케인즈는 이를 두고 “전비조달을 위해 재무성은 매일 500만 파운드화를 구해야 하고 그중에 200만 파운드화는 미국에서 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sup>51)</sup>, 영국 재무성과 잉글랜드 은행은 영국 증권을 미국의 모건은행으로 보내 달러로 바꿔 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영국의 식량부족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이 식량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중요한 패배요인을 제공하였지만 영국은 이를 극복하였다. 섬나라인 영국도 전쟁기간 중 내내 예외는 아니어서 식량의 부족에 시달렸다. 특히 영국은 당시만 해도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생산된 물자를 해외에 판매하고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수입이 차단되면서 식량부족은 심하였다.

1915년 2월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그해 4월에만 86만 6,000여 톤의 선박이 격침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대되기 시작

49) Elisabeth Glaser, “Better Late than Never”, *Great War, Total War*,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392; L. L. Farrar, Jr., “The Strategy of the Central Powers, 1914~1917”(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62.

50) Elisabeth Glaser, op. cit., p.391.

51) Kathleen Burk, *The Mobilization of Anglo-American Finance during World War I*(Ontario: Wilfrie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1), pp.30~31.

하여 많은 상선이 침몰되었다.<sup>52)</sup> 이로 인하여 주곡인 밀의 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식량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쟁빵(War Bread)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였다.

이 당시 식량분배가 무계획적으로 이뤄지면서 가격이 폭등하여 극빈층이 기본적인 식량문제마저 해결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밀가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단위중량당 밀가루 추출량을 늘려 희색빵을 만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였다.<sup>53)</sup>

1917년 4월, 당시 영국에는 식량은 6주분, 석유는 8주분에 해당되는 비축량만 있어서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영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sup>54)</sup>

따라서 영국은 국내에서 식량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식량생산성(Ministry of Food)’을 설치하고 전국의 정원이나 운동장, 철도와 도로변 등 곳곳에서 가용한 곳을 최대한 개발하여 300만 에이커의 농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여성들도 농작물 생산에 투입하여 활용하였으며<sup>55)</sup>, 정부가 나서서 식량의 유통과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였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918년 식량배급제도를 실시하였다.<sup>56)</sup> 시민들은

52) 독일군의 잠수함 작전으로 침몰된 상선은 1914년에 100척(31만여 톤)이었으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시작된 1914년 이후에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그해에만 516척(130만여 톤), 1916년에 1,157척(234만여 톤), 1917년에 2,676척(623만여 톤), 1918년에 1,209척(266만여 톤) 등 총 5,658척(1,286만여 톤)에 달하였다. 이 기간 중 독일군 U보트는 1914년 5척, 1915년 19척, 1916년 22척, 1917년에 64척, 1918년에 68척 등 총 178척이 활동하였다(폴 그레이브 맥밀런, 『지도로 보는 제1차 세계대전』, p.146).

53)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642쪽.

54) 육군대학, 『세계전쟁사(상)』, 대전: 육군인쇄창, 2004, 4-76쪽.

55) 이와 같은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시 스위스에서도 있었다. 스위스가 독일군에 의해 국경이 차단되면서 식량수입이 막혀 국내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취리히 대학의 발렌(F. T. Wahlen) 박사가 입안한 “발렌 계획(Wahlen Plan)”에 따라 전국의 정원이나 운동장, 알프스의 산지와 습지 등의 삼림과 물을 제거하여 농지로 개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다.(Howard, Constance, “Switzerland, 1939~1946”, *The War and The Neutral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218)

56)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322~324쪽. 영국은 자유무역을 중시하면서 식량을 수입해 먹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군의 잠수함 전으로 많은 선박이 손실되면서 식량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많은 선박들이 대서양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일정량의 쿠폰을 받아서 정해진 양의 식품을 받으면서 쿠폰을 제출해야만 하였으며, 식품을 배급받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만 하였다.

영국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였고 염전사상이 확산되기도 하였지만 독일에 비하면 그 정도는 매우 약하였다. 식량배급량이 1주일에 설탕 1파운드, 고기 1파운드, 마가린은 몇 온스 등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 비하면 그래도 사정은 좋은 편이었다.<sup>57)</sup>

전쟁을 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비전력의 동원과 함께 무기 및 탄약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금속, 특히 철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의 문제로, 당시 영국은 독일의 1/2에도 못미치게 철강을 생산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강생산량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당면 문제였다. 당시 탄약장관직을 맡고 있었던 처칠(Winston Churchill)은 “이 전쟁은 철강전쟁이다. 전쟁의 승패는 철강의 생산량에 달려 있다.”는 말로 철강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 국민은 철강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금속들을 수거해서 공장으로 보냈으며, 유명한 런던의 하이드 파크 공원의 철제난간도 수거됐다. 이렇게 획득한 철강이 화포와 탄약을 만들거나 전함을 건조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리 전쟁기간이라고 해도 국가는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면서 전쟁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함을 영국의 사례는 보여준다.

---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영국은 지금은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어 일부 품목은 수출까지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5~26%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일이다.

57) 위의 책, 646~647쪽.

## 4.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 1) 독일의 경우

전쟁초기단계에 독일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황제나 국민들 모두 목전에 승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전쟁이 서부전선에서 참호전과 교착전으로 진행되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가면서 독일은 예비전력이나 식량과 석유같은 전략자원에서의 전쟁지속능력 문제에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힌덴부르크계획으로 가용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무기와 탄약을 배로 생산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투입하였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국가자원의 사용이 왜곡되고 농업부분이 소홀히 돼 곡물생산이 급감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굶주리고 기아자가 발생되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하였고 도처에서 파업도 발생하였다.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가세하면서 혁명적인 양상으로 발전해 갔다. 해군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되자 정부각료들은 황제를 퇴위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황제는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전쟁이 끝난 것이다.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해군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육군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에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항복한 것이다.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독일군이 전쟁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전쟁초기단계의 독일국민의 전승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부적절한 국민생활 안정대책으로 국민들의 삶은 악화돼 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도 악화됐고, 결국 독일은 패배한 것이다.

## 2) 영국의 경우

전쟁초기단계 영국은 독일과는 달리 전쟁에 대한 승리를 위한 노력이 결여돼 있었다. 영국이 독일군의 공격에 직접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안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징병제도 도입을 의회가 거부하였는가 하면, 국민들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병력을 충원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도 미흡하였다.

독일군이 벨기에를 공격하자 영국은 프랑스에 부대를 파병하도록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원정군 부대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당시 잘 훈련된 부대로 이름난 부대였으며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동안 탄약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면서 전투를 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16년도 로이드 조지(이어서 처칠)가 탄약성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기계장비를 도입하고 탄약생산량을 확대하면서 해결되었다. 이렇게 탄약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탄약공장으로 동원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독일해군의 잠수함 작전으로 수많은 상선들이 대서양으로 사라지면서 영국도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영국은 정부가 나서서 가용한 토지를 개간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강력한 유통통제와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전비를 조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도 동참하였다.

영국은 독일처럼 전쟁초기 단계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의지가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 국민이 전쟁에 지쳐서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동원과 식량의 부족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켜 나갔으며, 마침내 승리를 한 것이다.

### 3) 분석 및 교훈

전쟁에서 승리는 어떤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가(군사)지도자의 전쟁지도와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유형적 요소의 우위, 정치와 외교력 등의 무형적 요소 등이 어우러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의 영국과 동맹국 독일의 전쟁에서 협상국인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국민의 의지’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쟁에 임하였던 국민들의 자세이다. 전쟁초기단계에는 독일 국민의 전쟁에 참여하는 정신이 우월하였다. 그들은 독일군이 전선으로 출병하는 것을 환송하면서 승리가 독일의 목전에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였다. 그러나 서부전선에서 전투가 교착되고 장기전으로 가면서 독일 국민들의 생활, 특히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의는 상실되고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였다. 파업이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혁명의 분위기가 저 발생하다가 해군에서의 반란이 전쟁을 결정적으로 기울게 만들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전쟁초기단계에 병력의 모병제로 병력의 충원이 안 돼 징병제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력을 모집하여 프랑스 전선으로 보냈으며, 여성들도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돼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국민들의 지원활동이다. 전쟁기간 중 영국이나 독일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또는 각종의 군수 및 방위산업 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영국에서는 특히 탄약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의 90%가 여성일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방위산업 시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전비를 조달하고자 정부가 발행하였던 전시채권을 구입해서 전비를 조달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주로 국민들이 전시채권을 구입하였다면 독일에서는 주로 기업이나 은행같은 곳에서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구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국민들이 직접 전쟁의 주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전쟁기간 중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전쟁초기단계에는 양국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서 영국은 독일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수많은 상선들이 침몰되면서 식량의 부족에 시달렸다. 영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유통의 통제와 더불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하였다. 독일도 영국의 해상봉쇄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식량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됐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자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점증하면서 마침내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가세하면서 점차 혁명양상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해군의 폭동마저 발생하면서 전세는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양국이 모두 비슷하게 식량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영국은 정부가 이 상황을 주도하여 해결해 나갔다면 독일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양성됐고 마침내는 정권의 퇴진까지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결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세이다. 전쟁은 피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이러한 고통을 어느 국민이 이겨내면서 전쟁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결과는 달라진다. 북한이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상상하는 이상의 피해와 고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승리를 위한 우리들의 정신적 자세는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한 적극적 호응이다. 전쟁기간 중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력동원의 의무로부터



다양한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흔히 있는 일이다. 전비조달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전시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다양한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한편 평시 국민으로 누리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국민 의지의 표현이다.

세 번째는 전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다. 전쟁사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면 전쟁기간 중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때 국민들도 극한의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 여기서 국민들의 생활안정의 핵심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그렇지 못하여 굶주릴 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항하였고 그러한 대항이 이념과 결합되었을 때 정권은 망하였다. 그러한 사례가 독일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제1차 세계대전시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전쟁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 돕고 국가를 위해 희생 및 봉사하였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 5. 결 론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당사국이었던 영국과 독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상대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우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군력에서는 영국이 앞섰으나 전체적인 국력에서는 비슷하거나 일부에서는 독일이 앞서고 있었다. 단순히 수치 비교만으로는 영국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영국이 승리하였다.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것 하나로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미국의 지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전쟁

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영국 국민들의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의 남성들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 전선에 원정군부대의 전투원으로 참전하여 전투를 하였으며, 수많은 여성들은 무기 및 탄약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국군이 당면하는 탄약 부족량을 생산해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면서 연합국 주력이 되어 프랑스를 지원하였다. 부족한 식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배급제는 기본이었고, 전국의 이용 가능한 모든 곳을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해서 곡물 생산량을 늘렸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전쟁초기의 승리에 대한 희망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라지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기 시작하다가 식량의 부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파업과 반정부 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독일이 패망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원인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수많은 인명의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가 동반될 것이다. 어떤 경우로든 전쟁의 발발을 억제해야만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때 우리 국민들의 의지는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전쟁의 결과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지도자는 국민들의 항전의지가 한곳으로 결집되도록 전쟁지도를 해야 한다. 여야정치권도 국민들의 의지가 한곳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지가 한곳으로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특히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시 일정량의 비축, 전시 긴급도입, 필요에 따라 배급제 시행, 전시 농작물 생산량 확대를 위한 대책, 사재기의 강력한 통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쟁기간 소요될 전비규모를 판단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연구해

두어야 한다. 조세율은 얼마나 올릴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세금항목을 신설할 것인지, 전시채권을 발행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또 각종의 연기금이나 외환보유액을 전비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검토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원이나 비전투원으로 동원되게 마련이다. 정부는 국민적 총동원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소수의 권력층이나 부유층의 해외 도피와 같은 일탈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여 국민의 의지를 굳건히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단결을 저해케 만드는 행동이 된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국민의 의지 고양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돼서 전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국민들의 삶이 보장되어야만 그들은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국민의회, 전쟁, 영국, 독일, 동원, 총력전, 전비, 조세부담, 식량, 국민생활

<ABSTRACT>

How the Will of Citizens Influenced the Result of War:  
Based on the cases from Great Britain and Germany  
During the World War One

Lee, Gi-deuk

In the modernized warfare, all the forces are being integrated to win the war. victories in any war can no longer be achieved merely by a variable or two. There are certain types of variables that are defined as archetypical tangible elements such as the national leader's war leadership,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reserve forces, and mobilization capabilities, etc. In addition to those tangible elements, there are intangible elements -- such as politic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 cultures -- these are also considered as the vital variables that would determine victory in war. Another factor that would determine the result of war i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will of the people", which is another type of intangible element.

War causes significant damages to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in it, and the damages are catastrophic. For instance, many people will nearly starve to death, and vast majority of people will lose their shelters because their houses will be destroyed. Moreover, heating system will fail to keep people warm. While there will be numerous displaced civilians, blackouts and lack of water supply will cause a great difficulties to the people.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axes, and issue war bonds to provide funding during the war. Many men will be conscripted to fight the war, and women, on the other hand, will be sent off to the factories to manufacture weapons and ammunition.

In the mix of helter-skelter, some nation have overcame its suffering

and achieved victory. While other nations could not overcome the suffering from war, and thus conducted anti-government activities that led to losing the war.

If war breaks out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 doubt that the war will cause national calamities. Whatever the cause, the war must be avoided. It is vital to achieve victory if war breaks out. In order to achieve such a task, the citizens will have no choice but to serve in the military with various military tasks assigned to them, while they limit the citizen's right. Hence, throughout this process of fighting the war, the result of war will be significantly determined by the will of Korean people.

As a conclusion, it is exigent to argue that the citizens must show their determination to win victory in war, and the government must use any necessary means to support the citizens so that they can fight for victory.

Key Words : Will of citizens, War, Great Britain, Germany, Mobilization, A total war, War funds, Burden of taxation, Ration, Citizen's life

